

## 거룩한 분노는 가능한가

양성만 (우석대학교)

### I. 서론

우리는 아마도 늘, 여러 가지 이유로 (심지어는 동일한 순간에 여러) 감정을 품고, 그 감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 '감정을 따르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라.'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사람이다.'와 같은 말은 감정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는 말이지만 감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은 반영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또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의 삶에서 감정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다.<sup>1)</sup> 감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감정이 자기 삶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정도를 평가해 보라고 보면 보통 10점 만점에 5이상의 숫자를 택한다. '9'라고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고, 과장이겠지만 '10'이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다. 4이하라고 답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이다. 이 수치에 무슨 객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지만 감정의 중요성에 대한 젊은이들의 감상적인 이해를 보여 준다고 하겠다.

철학에서는 일찍이 희랍 시대부터 감정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철학의 주된 문제는 되지 못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감정 자체가 합리적인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sup>2)</sup> 감정은 지성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 자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때때로 그 원인이 되는 자극이 내 의식에 분명하게 표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디까지가 감정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 그 경계도 모호하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감정을 다룰 때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취했다. 이성과 대조되어 감정은 그 자체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합리적인 생활을 영위하려는 이성을 방해하는 문제아처럼 취급을 받았다.

이제 최근 들어 철학자들은 몸, 감정에 대해서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를 보인다. 감정에 대해 큰 흥미를 못 가지던 국내 철학자들이 최근 10여 년 동안 어느 주제보다 이 주제에 관해 연구 논문을 쏟아낸 것은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이제 감정은 심리학뿐 아니라 생리학, 교육학, 윤리학, 경제학, 역사학 등 다방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

1)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는 감정 때문에 전쟁과 같은 많은 문제가 일어나니 인간 삶에서 감정을 없애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인간 삶에서 감정을 말살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삶을 비인간화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 영화이다. 『더 기버』도 감정에 대한 동일한 발상을 포함하고 있다.

2) 다마지오에 의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경과학자들조차 느낌(feeling)은 사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과학의 경계 저편에 있고 영원히 신비로운 영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에 빠져 있었다고 기술한다. (Damasio 2003/2007: 5).

한편 성경에는 감정에 대한 언급이 매우 빈번하게 나온다. 어떤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관련된 사람의 감정을 빌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sup>3)</sup>,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단지 어떤 기준을 어떻게 어겼거나 지켰다는 식으로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가 하는 방식으로 말하기도 한다.<sup>4)</sup>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아니겠지만) 본질적인 특성을 적시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하여(롬 14:17) 감정적인 측면을 포함시켰다. 또 성경은 직접 어떤 감정은 정죄하고 어떤 감정은 권장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마 5:22). “항상 기뻐하라”(살전 5:16).

그런데도 기독교계에서 감정을 대하는 태도는 철학계의 이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독자들 중에 감정 자체를 다루는 설교를 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 칼빈, 에드워드 조나단 등 일부 신학자들은 감정을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기독교계는 이 흐름은 이어가지 못했다. 신앙에서 감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앙적 감정』 Faithful Feelings을 쓴 엘리엇(Matthew A. Elliott)은 신학자들이 신약 성경의 감정 단어를 설명할 때 일상적인 감정과는 차원이 다른 감정으로 해석한다고 불평한다(Elliott, 2006, K. 1748 of 4229).<sup>5)</sup> 감정에 대한 철학계의 저평가 분위기가 신학계를 전적으로 지배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한국 기독교계에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학문적으로 논의한 경우가 전무하지는 않으나 신학적인 접근은 거의 없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감정론』이 번역되어 있고 에드워드의 신앙감정론에 대한 연구가 몇 편 있을 뿐이다. 감정 자체에 대한 기독교적 탐구는 미국에서도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는 듯하다.

온전한 감정 신학을 구성하려면 여러 주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하나님의 감정, 성경에서 금지하는 감정, 권장하는 감정, 좋은 감정을 향상시키고 나쁜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 감정의 창조, 타락, 구속의 측면, 그리스도의 감정, 구원이 완성된 상태에서의 감정 등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신자가 품기에 적당한 감정, 결국 신자의 올바른 삶을 증성한 신자가 말씀의 교훈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룩한 삶이라고 부른다면 어떤 감정이 거룩한 감정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감정(emotion)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II장). 나의 감정은 나에게 무엇보다 느낌

3) 성경에 기록된 사람 상호 간의 첫 대화는 상대에 대한 자기의 감정 표현이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 2:23).

4) 예컨대 히브리서 3:15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히브리서 11: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2:2은 두 가지 표현 방식을 같이 쓰고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5) 논자는 이 책의 킨들(kindle) 버전을 사용했다. 킨들은 책의 위치를 나타낼 때 킨들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K. 1748/4229’은 킨들 버전으로 전체 4229 중의 1748 지점을 표시한다.

(feeling)으로 나타난다.<sup>6)</sup> 그리고 이 느낌에는 그 느낌에 특징적인 몸의 변화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지난 세기까지 서양 철학에서 감정의 이해의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느낌을 감정의 본질로 보는 감정 비인지주의(non-cognitivism of emotion)이다. 플라톤이 감정을 합리적인 사고와 대조하여 파악한 이후 그 설명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데카르트, 흄, 찰스 다윈, 제임스와 랑게 등이 이 노선을 대표한다. 이에 따르면 감정은 일종의 의식적인 경험인데, 이런 의식은 감정을 일으키는 어떤 자극에 의해 발생한 신체 변화에서 비롯되며, 보통 여기에는 울거나 웃거나 미소를 짓는 등의 감정행위가 뒤따른다.

그러나 비인지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오늘날의 추세는 인지주의 쪽으로 기울었다. 감정 인지주의(cognitivism of emotion)는 생각, 평가, 신념과 같은 인지적 요소가 감정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다. 근대의 첫 번째 인지주의 심리학자 아놀드(Arnold)는 감정을 ‘알맞다고 판단된 대상으로 향하려는, 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는, 그 유형의 감정에 고유한 특정 신체 변화에 의해 강화된 느낌의 경향성(as the felt tendency toward an object judged suitable, or away from an object judged unsuitable, reinforced by specific bodily changes according to the type of emotion’이라고 정의한다(Elliott, 2006: K. 250-251/4229). 솔로몬(Robert Solomon), 누스바움(Martha Nussbaum) 등이 이 진영의 대표자로 꼽힌다.

일반 학문계의 감정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엘리엇은 신약의 저자들이 이 두 진영 중 인지주의 입장에서 감정에 대해서 기술했다고 본다(Elliott, 2006: K. 2589/4229). 감정을 인지주의적으로 이해하면 감정에는 판단 및 평가가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어떤 감정이 그 상황에 적합한 감정인지의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또 감정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다. 엘리엇은 『신앙적 감정』에서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 대 비인지주의 사이의 논쟁을 소개하고 인지주의적 입장에 설 때 이성과 감정의 통합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인 후 구약과 신약이 감정을 어떻게 인지주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해 낸다. 그에 따르면 정당한 감정의 문제는 그 감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판단이 정당한지의 여부, 그리고 그 사태를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올바른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는 구약과 신약이 이 기준에 따라 사랑, 기쁨, 질투, 두려움, 미움 등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 준다. 논자는 이 내용을 간략하게 III장에서 소개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자기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당한 가

6) ‘emotion’이 감정 일반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 그 전에는 ‘passion’, ‘sentiment’, affection, ‘affect’, ‘disturbance’, ‘movement’, ‘perturbation’, ‘hpheaval’ 등이 사용되었다(최희봉 2006: 207-; de Sousa, 2018). 한편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을 영어권에서는 일반적으로 ‘feeling’으로 표기한다. 이에 비해 ‘emotion’은 감정의 주관적인 요소인 느낌뿐 아니라 감정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 좋고 나쁜 감정의 기반이 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이에 감정에 수반되는 두뇌 및 신체의 변화, 감정에 따른 일정한 경향의 행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용어들을 번역하는 방식은 학과에 따라 다른데, 철학에서는 ‘emotion’과 ‘feeling’을 각각 ‘감정’과 ‘느낌’으로 옮기지만 심리학에서는 ‘정서’와 ‘감정’이라는 번역어가 일반화되어 있다.

치관만 갖춘다고 정당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성경은 감정의 이면 저면을 여기저기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정당한 감정 일반의 기준에 대해서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IV장에서, 처음에는 정당하지 않았던 감정에 휩싸여 있다가 후에 정당한 감정을 갖게 된 세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면서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신자의 바른 감정이 어떤 것일지 그 기준을 찾아보려고 한다. 먼저 400인과 함께 자기를 향해 오는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 있었다가 압복강 앞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후 평안과 용기를 찾은 야곱,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여러 날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을 잃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홀로 서서 '여러분이며, 안심하라'며 격려했던 바울,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지경에 있었고 십자가상에서도 여전히 슬픔과 수치심, 절망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자기 사명을 다 이루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와 마리아, 여자들을 돌본 그리스도의 경우이다. 이 사례를 분석해 보면 바른 감정이 바른 지식과 가치관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임이 드러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엘리엇은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의 대결 구도에서 인지주의 쪽으로 완전하게 기울었다. 그러나 학계 일반의 전체적인 형국은 인지주의의 우세이지만 하지만 인지주의의 일방적인 승리라고는 할 수 없다. 감정에서 인지주의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어렵지만 양가 감정(ambivalent emotion)이나 저항하는 감정(recalcitrant emotion) 같은 문제는 인지주의 자체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이다. 그래서 이 두 입장의 절충 내지 결합안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달리 말하자면 감정에는 이성의 인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비인지적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기독교적 감정 이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감정의 완전한 성화를 위해서는 몸의 구속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감정 신학에 이런 요소를 포함시켜야 예컨대 에베소서 4:26-27과 같은 분에 대한 구절이 바르게 해석된다는 것이 필자의 이해이다(V장).

## II. 비인지주의의 감정론과 인지주의의 감정론 논쟁

내가 내 감정을 아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느낌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이 느낌에는 몸의 변화가 따른다. 그러나 감정이 일기 전에 그 감정을 일으킨 자극에 대한 지각이 먼저 있고, 일단 감정을 형성되면 그 감정은 보통 표정이나 행동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데 수자(de Sousa)는 감정의 원형적인 사건(prototypical episodes of emotions) 안에서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을 구분한다. 평가 요소(evaluative component), 생리학적 요소(physiological component), 현상론적 요소(phenomenological component), 그리고 표현적 요소(expressive component)가 그것이다(de Sousa 2018). 예를 들어 꿈을 만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거기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는 꿈을 위험하다고 평가함,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오름, 불편한 느낌, 눈썹이 올라가고 입이 벌어지고 입술은 일자로 굳어짐이 각각 구별되어 나타난다. 이제 문제는 이것들 중 어느 요소를 감정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데 수자는 이에 따라 감정에 대한 이해 전통을 느낌 전통과 평가 전통, 동

기 전통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 1. 비인지주의 감정론

가장 간단하고 상식적인 감정 이해는 감정을 일종의 느낌으로 보는 것이다. 감정을 일으킬 만한 자극이 들어오면 이에 따라 감정이 발생하고 이 감정에는 대개 그 감정에 해당하는 신체 반응이 뒤따른다. 감정을 이처럼 특별한 종류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보는 견해가 고대 그리스에서 20세기 초까지 감정 이론을 전반적으로 지배해 왔다(de Sousa 2018).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전통을 비판하면서 'James-Lange theory'라 불리는 입장을 주장했다. 위에 이해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제임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들 거친 감정들에 관한 우리의 자연스런 생각에 따르면, 어떤 사실을 정신적으로 지각하면 이것이 우리가 감정이라 부르는 정신적 감정(mental affection)을 일으키고, 그리고 마음의 이 상태가 신체상의 표현을 일으킨다. 내 이론은 그 반대이다. 신체상의 변화는 감정을 일으키는 사실에 대한 지각에 직접 뒤따라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그 (신체상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느낌 그것이 감정이다. 상식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운을 놓치면 슬퍼지고 울며, 곰을 만나면 무서워지고 도망한다. 경쟁자에게 모욕을 당하면 화가 나게 되고 때린다. 내가 옹호하는 가정에 따르면 이 순서는 잘못되었다. 한 정신 상태가 다른 정신 상태에 의해 직접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표출이 이 두 정신 상태 사이에 먼저 개입해야 한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으로 진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때때로 그러하듯이 슬퍼지고, 화가 나고, 무섭기 때문에 울고, 때리고, 몸을 떠는 것이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퍼지고, 때리기 때문에 화가 나고, 몸을 떨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만일 지각에 뒤따르는 신체 상태가 없다면 이 지각은 그 형식에 있어서 순전히 인지적이고 창백하고 색깔도 없고 감정의 온기도 다 잃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곰을 보면 달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할 것이고, 모욕을 받으면 때리는 것이 옳다고 여기겠지만 우리는 실제로 두렵거나 화를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James, 1890: K. 19794-19801/23932)

이 주장에 따르면 감정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신체의 변화이다. 감정을 갖기 때문에 신체적 표현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변화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이기 때문이다.

제임스의 이 이론이 옳다면 각각의 감정들이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에 고유한 신체 변화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1920년에 벌써 Walter Cannon에 의해서 반박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두려움과 분노와 같이 구별되는 감정에 고유한 신체 반응들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de Sousa, 2018:6). 이 문제의 결판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경험적인 연구를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Jerom Kagan은 각 감정에 고유한 신체상의 변화(뇌생리학적 현상까지 포함해서)를 발견하리라는 전망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다(Kagan, 2007/2009).

또 하나의 문제는 감정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그가 왜

그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도 없고, 또 그 감정이 그 상황에 적합한 감정인지 여부도 판정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꿈을 볼 때 왜 두려움을 느끼는가?'라고 물으면 꿈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단, 또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인데, 제임스의 모델에서는 이런 인지적 요소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 또 꿈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기에 적합한 대상이기 때문에 꿈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감정은 그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만일 가랑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두렵다고 한다면 그 감정은 상황에 적합한 감정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 2. 인지주의 감정론

케니(Anthony Kenny)는 감정에 위와 같은 '대상을 향함'이라는 속성이 있음을 주목하고 감정의 '구체적인 대상(particular object)'과 '형식적 대상(formal object)'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Kenny 1963). 내가 어떤 대상 X에 대해서 어떤 감정 E를 품는다면, 대상 X는 감정 E의 '구체적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때 내가 대상 X에 대해서 E라는 감정을 품음으로써 내가 대상 X에게 암묵적으로 돌린 성질이 감정 E의 '형식적 대상'이 된다. 위의 예에서 나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구체적인 대상은 꿈이고, 형식적인 대상은 위험성이다. 꿈이 '위험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을 느낀 것이다. 이렇게 감정은 그것이 구체적인 대상을 가질 때 대상 지향적이 되고, 그 구체적인 대상이 그 감정으로 대표되는 형식적 대상의 적합한 예가 될(instantiate) 수 있을 때 그 감정은 그 상황에 적절한 감정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

이처럼 감정은 대상에 대한 지향성(intentionality)을 갖는다는 이론을 인지주의 감정론(cognitive theory of emotion)라고 부른다. 이에 비해 앞 절에서처럼 지향성, 즉 인지적 요소를 감정의 본질에서 배제하고 다른 요소로 설명하는 이론을 비인지주의 감정론(non-cognitive theory of emotion)이라 부른다. 인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철학자들은 대체로 감정을 이런 종류의 인지 또는 평가와 동일시하는 입장을 취했고, 심리학에서는 이런 종류의 인지 또는 평가가 감정을 일으킨다는 입장을 따랐다(de Sousa, 2018, 8). 솔로몬(Solomon), 누스바움(Nussbaum) 등이 인지주의 감정론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인지주의 감정론을 얼핏 보면 감정을 판단과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므로 다음의 몇 가지 비판을 받는다. 만일 감정을 판단과 동일시한다면, 감정은 행동을 일으키는 강한 동기로 작용하는 바, 이 동기를 설명할 수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어떤 판단을 한다고 해서 행동의 동기가 반드시 형성되는 것은 아닌데, 감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기화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 감정에는 평소와는 다른 신체 상태가 따르고, 좋고 나쁨의 유인가(valence)가 형성되며 흥분이 따르는 것이 보통인데, 감정을 판단과 동일시한다면 이 점을 설명할 수가 없다. 셋째로, 만일 감정이 판단이라면 판단력이 없거나 미숙한 아거나 짐승의 감정은 감정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또, 예컨대 지적으로는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감정을 '이성에 저항하는(recalcitrant to reason)' 감정이라고 부른다. 만일 감정이 판단과 동일하다면 이런 저항하는 감정은 없어야 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난점 앞에서 인지론자들이 취하는 노선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판단에 다른 요소들, 예컨대 감정의 요소나, 욕망, 느낌 등의 요소를 부가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인지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감정의 지향성도 설명하면서 동시에 위와 같은 비판을 피할 수 있는 모색하는 것이다. 데 수자에 의하면 후자가 현대 감정 철학계에서 선호되는 노선이라고 한다(de Sousa, 2018: 9).

한편 철학계의 인지주의와 나란히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노선이 형성되었는데, 데 수자는 '평가이론(appraisal theory)'이라고 부르는 여기에는 Aarnold, Lazarus 등이 속한다. 이들은 심리학자답게 평가 과정의 내적 구조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려고 한다. 아놀드는 평가가 감정을 유발시키는 환경의 좋고 나쁨, 있음과 없음, 얻거나 피하기의 쉽고 어려움이라는 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분석한다. 라자러스는 6개의 차원으로 구분한다.

앞의 간단한 설명에서도 우리는 두 진영의 논박이 쉽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겠다는 인상을 받는다. 여기에는 감정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 어떤 것을 원형적인 감정으로 간주하고 다른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겠다. 이미 앞에서 이미 지적되었지만 감정은 인지적 요소, 느낌의 요소, 신체적인 요소, 행동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의 논의에서는 평가(인지주의) 전통과 느낌(비인지주의)의 전통이 점차적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듯하다(de Sousa 2018:12; Furtak, 2010).

### III. Matthew Elliott의 감정 신학

그러면 성경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신학자들은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정에 대한 성경의 언급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기독교는 감정의 본질 해명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 학계에 앞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일반 학계의 토론을 한참 뒤에서 뒤따라가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엘리엇은 자기보다 앞서서, 신약의 감정을 다루는 학문적 저작들 중에 '감정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작품을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에 한탄한다. 그만큼 신학은 너무 자주 다른 학문 학과들과 교류를 시도하지 않고 홀려 서려고 한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신앙적 감정』에서 감정에 대한 현대의 연구 결과들을 신약의 감정 연구에 적용해 보려고 한다. 그는 이 책에서 신약에 나오는 중요한 감정들, 분노, 기쁨, 소망, 두려움 등의 구체적인 감정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감정 자체를 신약의 저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신자의 삶에서 감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Elliott, 2006: K. 92-97/4229).<sup>7)</sup>

7) 엘리엇 자신은 '감정 신학(theology of emo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용어는 Sam Williams 이 자기 논문에서 사용했다. "Toward a Theology of Emotion"라는 논문에서 그는 "감정 신학은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의 자기 기술에서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인격이며, 창조주요 우리

이 목적을 위해 엘리엇은 그의 책 1장에서 제일 먼저 '감정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그가 이 장을 자기 책에 포함시킨 이유를 감정에 대한 '비인지주의' 접근방식이 신약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약학 학자들이 의식적으로 이 이론을 견지한 것은 아니지만 감정에 대한 비인지주의 접근 방식이 지난 세기에 대부분의 학문적인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신약학 학자들도 자연스럽게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Elliott, 2006: K. 109/4229). 그래서 그는 감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주요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관점이 가장 잘 작동하는 모델인지를 검토한다.

엘리엇은 감정에 관한 이론들을 대범하게 분류해서 인지주의 이론과 비인지주의 이론의 두 진영으로 나누어 소개한다(Elliott, 2006: K. 120/4229). 그는 이 두 접근 방식은 이미 고대 철학자들뿐 아니라 연극 및 시에서도 발견되며, 교회 역사의 오리겐, 어거스틴, 켈빈, 웨슬리, 가장 뛰어난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 두 진영 중 하나에 속한 생각들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 사이의 현대의 논쟁을 이해하면 지성사의 이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씨름한 중요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앞 장에서 두 노선을 이미 소개했으므로 두 진영에 대한 엘리엇의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엘리엇은 감정에 대한 주요 비인지주의자들의 설명과 주장을 제시한 후 이 비인지주의 이론이 감정에 대한 이론으로서 부적합함을 보여 주는 철학적 논증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그 중에서도 강력한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논점인데, 그 내용은 앞의 3장에서 우리가 이미 지적했던 내용이다. 각각의 감정에 고유한 생리학적 변화를 구별해 낼 수 없다는 것이 셋째이고, 넷째는 만일 감정을 비인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감정을 평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엘리엇은 다마지오에 의해 제시된 증거를 더한다. 요컨대 다마지오의 뇌생리학 연구에 의하면 이성과 감정은 뇌생리학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Elliott, 2006: K. 231-236/4229).

이에 비해 감정 인지주의는 무엇보다 감정의 책임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 감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데, 감정 자체를 우리 마음대로 없앤다든가, 나쁜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인지주의에 따르면 감정은 그 감정을 일으킨 신념과 그 신념 뒤에 있는 가치기준을 바꿈으로서 바꿀 수 있게 된다(Elliott, 2006: K. 315/4229). "우리는 우리 감정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감정들은 신념과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K. 330). 그래서 엘리엇이 인지주의 감정론과 비인지주의 감정론 사이에서 내리는 결론은 인지주의 이론이 감정을 설명하는 데 더 작동하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에 설 때 감정의 작동을 설명하는 보다 효과적인 이론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K. 362).

감정이 이성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엘리엇은 감정이 우리

---

가 그 형상을 품은 원형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Williams (2003). 아마존에서 'theology of emotion'라는 검색어로 책을 검색하면 이 용어를 서명으로 쓰는 책으로 2012년에 출판한 Sky Cady의 Theology of Emotions: God's Design and Desire for Our Emotional Nature이 유일하게 나온다. 엘리엇 자신은 '감정 신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렇게 불러도 될 듯해서 이 장의 제목으로 사용했다.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덧붙여 지적한다. 감정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준다. 감정이 기억과 학습에 영향을 끼친다는 실험적 증거도 있다. 감정이 일을 하고 수행력을 높이는 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감정은 윤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면에서 비인지주의자 칸트는 윤리에서 감정을 철저히 제외시키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인지주의 이론이 감정을 설명하는 보다 유용한 접근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엘리엇은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 결정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적 이해를 갖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감정과 이성을 분리시키는가, 아니면 통합된 것으로 보는가?”(K. 501, 504).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 엘리엇은 성경의 다양한 주제들, 다양한 용어들의 용례, 의미들을, 이에 대한 신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과 함께 검토한다. 시대별로는 구약에서의 감정과 제2예루살렘 시기의 유대인 사회에서의 감정, 그리고 신약에서 감정을 구분하여 다룬다. 구약에서의 감정과 신약에서의 감정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그 구체적인 주제들이 대부분 일치하는데, 마음의 개념, 하나님의 감정, 사랑, 소망, 두려움, 분노, 미움, 질투, 슬픔 등이 그것들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감정과 분노의 두 주제만 간략하게 제시하기로 하자.

#### 하나님의 감정

엘리엇은 구약이 야웨를 감정적인 하나님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의 순종을 욕구하며 자기를 따르는 자들 안에서 기뻐하고, 악함을 미워하며 불순종에 분노하고 이스라엘의 순결성에 대해 질투한다. 교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감정들을 은유적인 것으로 이해하지만 엘리엇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엘리엇은 이런 잘못된 풍조는 플라톤 철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또 초기 기독교는 하나님이 비합리적인 열정에 휘둘리는 당시 이교도들의 신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했다(Elliott, 2006: K. 1050/4229; Borgman, 2009: 208).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열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한다. 다음의 구절들을 생각해 보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렘 31:20).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출 20:5).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언약적 사랑을 베풀 뿐 아니라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고 또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한다. 엘리엇은 분노와 사랑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주 화를 내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자기가 자기 아들한테 화를 내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 아들이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에 대해 가장 마음을 쓰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Elliott, 2006: K. 1090/4229).

하나님께 대한 성경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신인동형론적 표현(anthropomorphism)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성경 구절을 설명할 때 같은 방식을 따른다(Calvin, 2003: I. 17. 13.). 그러나 최근에 감정 신학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감정을 가진 인격이라고 이해하려고 한다. 윌리엄즈는 “하나님의 불가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감정을 과다하게 언급하는 것을 신인동형론으로 이해했지만, 이 글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신동형론적(theomorphic)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고 말한다(Williams 2003: 58). 오히려 하나님이 감정적인 인격이므로 그 형상이 인간도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주제를 여기에서 더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 분노

감정을 인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어떤 감정이 정당한가의 여부는 그 감정 이면에 있는 사실 판단과 그 판단에 적용한 평가 기준의 정당성에 달려 있다. 엘리엇은 이런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의 감정에 대한 언급들을 분석한다. 엘리엇이 관찰할 때, 구약이 감정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정당한 근거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두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긍정적인 감정들은 신학에 기초해야 한다. 긍정적인 감정들은 믿음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해야 한다.”(Elliott, 2006: K. 784-784/4229).

이 관점에 따르면 분노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잠언 14:29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또 16:32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와 같은 구절들은 분노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기보다는 노하기를 지혜롭게 더디 하라는 것이다. 정당하게 화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분노는 위험하다. 그러니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조급하게 화를 내지 말고 정당한 상황인지를 침착하게 살펴야 하며, 또 화를 내었을 때는 그 분노에 사로잡혀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착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열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다.

만일 구약이 분노에 대해서 인지주의적 이해를 갖고 있다면 어떤 분노는 정당한 대상을 향하기 때문에 정당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엘리엇은 이런 정당한 분노의 경우를 구약 성경에서 다수 발견한다. 그 목록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백한 금령을 어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한 경우(출 16:20),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대노한 경우(출 32:19), 암몬 사람 나하스의 헐박을 들은 후 야베스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분노하는 경우(삼상 11:6)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엘리엇은 분노와 미움에 대해 이렇게 정리한다.

분노와 미움은 의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 감정들이 옳은가, 아니면 악한가 하는 것은 그 감정들의 대상들의 본성에 달려 있다. 동료를 향한 분노는 매우 위험하며 성급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야 한다. 이에 비해 죄를 향한 미움은

정당하고 옳다. 사실 의인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그가 죄를 미워한다는 사실에 있다.(Elliott, 2006: K. 966-969/4229)

이런 기조는 신약에서의 분노를 분석하는 데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는데, 엘리엇은 특별히 예수님의 분노를 분석한다.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유일한 구절은 마가복음 3:5이라고 한다(Elliott, 2006: K. 2321/4229).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의 이런 분노가 정당한 까닭은 그들이 그러낸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그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분노를 표시하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분노의 감정 없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중의 하나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때였다(요 2:14-16).

분노에 대한 신약 구절들 중에서도 엘리엇은 에베소서 4:26을 공들여서 해석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구절이 분을 전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사람(O'Brien)도 있는데, 그것은 4:31이 이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나 엘리엇은 31절의 분노는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지만 26절의 분노는 용납될 만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sup>8)</sup>

따라서 엘리엇은 이렇게 마무리한다.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것과 똑같이 분노의 윤리성은 그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신자가 정당하게 느낀 분노는 사회와 화해로 깨끗하게 되어야 하고 영속화되거나 미움으로 바뀌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분노의 경우, 그 결과는 자주 긍정적이다. 분노는 범과를 저지를 사람에게 그 범과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그래서 미래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Elliott, 2006: K. 2407-2411/4229)

이제 엘리엇은 자기가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에 답을 내놓는다. “신약의 저자들은 일반적으로 인지주의 관점에서 감정에 대해서 썼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가 신자의 감정의 전체적인 그림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기독교인의 본질의 한 부분은 그(녀)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에 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의 감정적 특징들이 어떨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 예수께서 과거에 한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에서 기쁨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에서 소망을 확보한다. 죄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위해 질투한다. 고통 받는 자들의 슬픔을 자기 것처럼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서는 근심한다. .... 이런 감정들은 좋은 신학의 결과이고, 신앙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들이다.(Elliott, 2006: K. 2892-2895/4229)

---

8) 에베소서 4:26를 주해하면서 정당한 분노를 인정하는 주석가들로는 Ellicott, Barnes, Jamieson-Fausset-Brown, Gill 등이 있다. 이들의 주석 내용은 biblehub.com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biblehub.com/commentaries/ephesians/4-26.htm>)

#### IV. 성경의 세 사례

엘리엇처럼 구약과 신약이 감정에 일관성 있게 어떤 말을 하는지, 또 그 언급들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기독교 감정론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겠지만 성경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 보는 것도 유익이 있을 듯하다. 필자는 세 사례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엘리엇의 올바른 감정의 기준이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요소가 더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 압복강 가의 야곱

성경은 어떤 경우에는 몇 백 년의 일을 단 몇 구절로 요약하고 넘어가다가 하면 어떤 일화에 대해서는 마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생생하고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다. 창세기 32장의 압복강 가의 야곱에 대한 기사가 이런 경우이다.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는 단신으로 갔지만 지금은 네 아내와 그들을 통해서 낳은 열한 아들이 있고, '거부'가 되었다는 말을 들을(창 31:1) 정도로 많은 수의 짐승들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의 수하에 있는 하인들도 상당수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는데 왜냐하면 형이 자기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400인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창 32:6). 형이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그 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오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사실 야곱이 부모 집을 떠난 것은 형에게 원한을 샀기 때문이다. 야곱은 팔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에게 자기를 에서라고 속여 형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이를 알게 된 에서는 아버지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야곱을 죽이리라고 작정한다. 야곱은 그런 형의 원한을 피해 외삼촌 집에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형이 자기를 미워하겠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사람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 자기의 귀환을 보고하게 하였는데, 들려온 소식은 400인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다. '형이 지금도 나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상황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되었다(창 32:7). 창세기 32장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야곱의 고민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 자기 종들과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어 만일 한 떼가 공격을 당하면 그동안 다른 떼라도 피해야 하겠다는 방도를 생각해 내기도 한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게 네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으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한편으로는 형의 노를 풀기 위해 500마리도 넘는 각종 짐승의 떼로 성대한 예물을 준비하고 에서가 그 선물을 먼저 보고 마음이 풀어지면 혹시 형이 자기를 받을지도 모르겠다고 기대해 보았다. 아마 옆에서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겠다. 아무도 감히 그런 야곱에게 말을 걸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던 야곱이 33장에 가면 180도로 달라진 태도를 보인다. 마치 이미 화해를 한 형제인 것처럼 40인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는 에서에게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일곱 번 절로 맞이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내들과 자식들을 아내 별로 배열하여 차례대로 자기 형 앞에 나아가게 하였다. 혹시 있을지 모를 형의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다. 만일 그럴 생각이었다면 자기 앞에는 몰라도 적어도 자기 처자들 앞에는 종들을 두어서 만일의 일을 대비하도록 했어야 했을 것이다.

32장과 3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야곱은 압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 거기서 만난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였다. 이 씨름한 일을 두고 호세아 선지자는 “또 장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한 것이라고 말한다(호 12:3,4).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울며 간구한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가 그 기도에서 무엇을 구했는가? 야곱이 천사에게 구한 것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에 담겨 있는 그것이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루 종일 형을 맞이할 방법을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마련해 보다가 마지막에 야곱은 깨달은 듯하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야곱은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청산해야 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으로 바꾸어야 했다. 천사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준 것은 이것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야곱이 어떻게 두려움을 털고 평화롭고 용감한 사람이 되었는가? 필자 생각에는 엘리엇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대한 바른 평가기준으로는 그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보다는 ‘믿음’이라는 말로 더 잘 표현될 듯하다. 그도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그것을 믿지는 못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생겼다. 기도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만나 주셨고, 그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셨다.

#### 유라굴로 광풍 속의 바울

이런 점은 유라굴로 앞의 바울에게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바울이 그 전에 어떤 감정상의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사흘 째 되는 날도 지나고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풍랑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어느 날 바울 사도가 한 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 뿐이리라. 23 나의 속한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행 27:22-25)을 보면 그 전에는 그도 두려움에 싸여 있었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지금까지

확신을 갖고 나서서 옆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할 만한 상태는 못되었던 것이다.

바울이 지금은 어떻게 두려움을 떨치고 평안과 안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안돈시킬 수 있는 힘까지 얻었는가? 위에 인용한 구절에 나와 있듯이 어제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울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기도를 통해 되어 있었을 듯하다. 바람과 풍랑이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당했겠고 굶주리고 잠도 못자 피곤한 몸이었겠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이 상황에서 로마 선교라는 자기의 소명 수행을 주께서 어떻게 허락해 주실지를 생각하며 그 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던 중 천사를 통해 안전 보장과 가이사 앞에 서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에게는 확신이 생겨 지금과 같은 권면의 말을 하게 된 것이다.

####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앞둔 예수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는 복음 사가들이 '고민하고 슬퍼하였다'고 기록할 뿐 아니라(마 26:37)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표현한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마 26:38; 막 14:34). '죽겠다'라는 말이 우리에게야 입에 발린 말이지만 예수님의 뜻은 정말 말 그대로 너무 너무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라는 뜻일 것이다. 우리는 그 사정이나 깊이를 알기가 어렵다. 십자가상에서 외친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통해서 그가 당한 고통과 두려움과 수치가 보통 사람이 죽을 때 당하는 것을 훨씬 뛰어 넘어 최종적인 심판의 엄위를 고스란히 당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엄위를 당한 일을 앞두고 그리스도는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러니 그의 몸에서 땀이 피처럼 떨어진 생리적 반응도 거기에 필적하는 현상이었을 것이다.

십자가를 질 때 이 분의 감정 상태가 창세기 33장의 야곱이나 천사를 만난 후의 바울의 감정 상태와 같거나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도저히 없다. 그러나 이 분에게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대개 내보이는 감정인 분노가 없었다. 오히려 그 대신 동정이 있었다. 그 동정을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베풀었고, 십자가 앞에까지 찾아온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베풀었고, 또 울며 자기를 따르는 많은 여인들,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까지 베풀었다. 그 모습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2:22-25이 잘 정리하여 전하고 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다 수행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도 착오 없이 다 이루신 것이다.

예수는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셨지만 이 일은 결코 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히브리서 7:7,8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설명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기도를 통해서이다.

이제 우리가 살펴 본 세 예들 모두 감정의 어려움을 겪다가 평정과 안정, 담대함을 찾은 경우들이다. 그런데 이 나중의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 변화가 있기 전과 후의 지식의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차이는 지식이라기보다는 믿음인 듯하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았고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그 상황에서 마음으로 믿기 어려웠다, 자기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마음에서 믿기 전까지는 그는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 믿음을 천사와의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이 점은 바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그리스도의 경우에 대해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믿음의 문제라는 설명보다 더 나은 설명이 있는지 모르겠다. 히브리서 기자가 '순종함'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듯하다.

#### V. 감정과 육체의 문제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정당한 감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아보았다. 엘리엇은 인지주의 감정론을 따라 바른 사실 판단과 그 판단의 정당한 평가 기준에 달려 있다는 답을 내어 놓았다. 여기에 필자는 성경의 몇 사례들을 살펴볼 때 믿음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충하였다.

그러나 감정에는 여전히 유보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 정당하게 화를 내게 되었어도 그 화는 위험하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약 1:20) 계속 품고 있지 말고 적어도 저녁때까지는 풀어야 한다고 사도가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엡 4:26). 이 경우 그 분이 정당한 감정이긴 하지만 여전히 결여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 부족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언제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성에 영원히 남아 있을 존재론적 결여라고 보아야 하는가?

필자 생각에는 여기에는 감정의 육체적인 요소가 결부되어 있는 것 같다. 현재의 육체의 특성상 거룩한 분노가 끝까지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 예컨대 분노가 생길 때 끓어오르는 육체의 열기는 분노가 분노답게 표현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지금 화를 돋우는 그 요소 외의 여타의 다른 부분들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이 면에서 엘리엇은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의 갈림길에서 지나치게 인지주의 쪽으로 기울고 감정의 육체적인 측면의 의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현재의 육체는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썩을 몸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육의 몸이다(고전 15:42-44). 현재의 육체의 이런 특성 때문에 현재의 거룩한 감정에도 여전히 부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 완전히 거룩한 감정은 육체의 부활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sup>9)</sup> 그때의 감정이 어떤 모습일지는 부활의 육체가 어떤 몸인지 잘 모르는 만큼 아직은 잘 모르겠다.

---

9) 부활 후에는 감정이 없을까? 이 문제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내려야 할지 필자는 잘 모르겠다. 앞에서 언급한 윌리엄스처럼 하나님을 감정을 가진 인격으로 본다면 사람은 부활 후에도 감정을 가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양선이 (2007). "윌리엄 제임스의 감정이론과 지향성의 문제", 『철학연구』 제79집, 107-128.
- 최희봉 (2006), "감성과 취미에 관한 흄의 견해", 『동서철학연구』 제42호, 205-225.
- Borgman, Brian S., (2009), Feelings and Faith Cultivating: Godly Emotions in the Christian Life, Kindle Edition Crossway.
- Calvin, John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원광연 역, 『기독교 강요』 상, 2003,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Damasio, A. (2003), Looking for Spinoza: Joy, Sorrow, and the Feeling Brain, 임지원 역(2007), 『스피노자의 뇌』, 사이언스북스.
- de Sousa, Ronald (2018), "Emotio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all 2018 Edition), Edward N. Zalta (ed.), URL =<https://plato.stanford.edu/entries/emotion/> (검색일 2019. 4. 27.)
- Elliott, Matthew A. (2006), Faithful Feelings: Rethinking Emotion in the New Testament, Kindle Edition, Kregel.
- Furtak, Rick Anthony (2010), "Emotion, the Bodily, and the Cognitive", Philosophical Explorations, Vol. 13, No. 1, 51-64.
- James, William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 Vols. 1-2: (Illustrated) Kindle Edition.
- Johnson, Gregory (2019), "Theories of Emotion",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www.iep.utm.edu/emotion/> (검색일 2019. 4. 29.)
- Kagan, Jerom (2007), What is emotion?, Yale University Press, 노승영 역, 『정서란 무엇인가?』, 2009, 아카넷.
- Kenny, Anthony (1963), Action, Emotion and Will, New York: Routledge and Kegan Paul: Humanities Press.
- Williams, Sam (2003), "Toward a Theology of Emotion,"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Journal, 7, no. 4 (Winter 2003), 58-74.